

구마모토 박물관

구마모토성 북서쪽에 위치한 구마모토 박물관은 2018 년에 전면 개장을 끝내고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1 층은 구마모토시의 역사와 문화, 2 층은 구마모토현의 자연사를 다루고 있으며, 지하에는 플라네타륨이 자리하고 있어 이들 모두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4 개 국어 음성 가이드(한국어 포함)도 제공합니다.

관내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전시는 가토 가문 다음으로 1632 년부터 약 2 세기 반에 걸쳐 구마모토를 다스렸던 호소카와 가문이 에도(지금의 도쿄)를 오갈 때 이용한 '나미나시마루'의 선실입니다. 1838 년에 건조된 나미나시마루는 호화로운 2 층 구조로 일본식 다다미방과 옷칠 목공 세공, 정교한 창호 등을 갖춘 선박입니다. 박물관의 2 층 창문을 통해 위에서 나미나시마루의 선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대별 생활상 전시

그 밖에도 구석기 시대부터 무사들의 시대, 그리고 20 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구마모토의 생활상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 복도에서는 관련 개요를 소개하며 옆에 마련된 방에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 서민들의 집과 쇼와 시대 중기(1960 년대)의 일반적인 주택이 재현되어 있으며, 특히 쇼와 시대 중기와 관련하여 전후 일본의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초기 가전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 층 한 면이 박물관 무대 뒤편(백스테이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문을 통해 창고 내부에 있는 약 4 만 2,000 점의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목록화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2 층은 자연사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구마모토시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즈호 바다의 디오라마 등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호수 아래에 서식하는 물고기의 시점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시품 및 외래 생물에 관한 전시도 흥미를 유발합니다. 또한, 구마모토시 서부에 있는 긴보잔 산에 서식하는 동물의 박제가 배설물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긴보잔 산에 서식하는 동물의 단서를 찾는 방법을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기타 자연사 관련 전시

2 층에는 마찬가지로 전통 자연사 전시 코너가 설치되어 있으며 포유류, 조류, 뱀, 어류, 균류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과 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 층의 주요 전시품으로는 코끼리와 비슷한 생김새로 중국에서 발굴된 스테고돈의 골격 화석과

구마모토에서 발굴된 스테고돈의 턱 일부입니다. 종합 지질학 코너에서는 암석 표본을 전시하고 있으며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